

'진안홍삼축제' K-컬처 100선

문체부 주최·한국관광공사 주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관광이벤트 선정

진안홍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추진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됐다.

K-컬처 관광 이벤트는 국내·외 관광객이 문화, 예술, 콘텐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력적인 우리의 문화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광역지자체와 민간 전문가가 추천한 이벤트를 대상으로 심사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진안홍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추진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됐다. 사진은 2022 진안홍삼축제 금척무시연 모습.

대한민국의 유일한 홍삼축제인 진안홍삼축제는 매년 10월 미산 북부에서 펼쳐지며 2020~2023 문화관광축제와 2019~2023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축제로서 자리매김했다.

또한 홍삼과 그 효능을 모티브로 하는 체합 및 게임으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프로그램 운영으로 홍삼의 고장들을 깨고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이다.

진안홍삼축제는 이번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됨에 따라 다국

어 리플렛 제작, 전국 관광안내소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국내외 이벤트 홍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와 이벤트를 연계한 방한 관광 상품화, 캠퍼 투어 등이 추진되게 된다.

군은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진안홍삼축제로 성장하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준성 군수는 "진안홍삼축제의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 선정과 한국방문의 해가 계기가 돼 진안홍삼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키도록 하겠다"며 "국내외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진안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축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지난 9일 '2024년~2025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다짐했다.

무주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2024년~2025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가져

무주군은 지난 9일 '2024년~2025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다짐했다.

이날 부군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유호연 부군수 주재로 민선8기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국가예산사업을 발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현재까지 발굴된 '2024~2025년도 국가예산'은 총 사업비 2천520억4천만 원 규모 56건의 사업으로 이날 보고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추진계획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주요사업으로는 △반딧불 스포츠타운 기반 조성사업(400억 원) △국계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10억 원) △소이나투 경관보도교 조성사업(300억 원) △폐기물매립 시설 3단계 확장공사(20억 원) 추진 등이다.

군은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국가예산 발굴 TF팀 신설과 전담연구원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용역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호연 부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발맞춰 사업의 논리를 보강해 달라"며 "민선8기 군정방침이 안정적인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목조문화재 화재 대비 소방훈련 실시

문화재 방재의 날 맞아 장수향교서 진행

장수군은 지난 10일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아 장수향교에서 화재대응 소방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장수향교 인근 산불로 인해 향교 대성전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화재신고 △유관기관 상황전파 △관람객 대피 및 문화재 반출 △자체 초동진화 △소방차 출동 및 화재진압△

훈련사항 강령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북동부문화재박물관에서는 화재대비 모의훈련을 비롯해 전기시설과 소화시설, 경보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했으며 관리자에게 정확한 소화기 사용방법 등 초동대응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문화재 방재의 날은 지난 2008년 2월 10일에 발생한 서울 숭례문 화재를 계

기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지정일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주로 목재로 만들어져 화재에 취약하며 큰 화재를 한번 겪게 되면 원형이 소실되기 쉽다.

임민규 문화관광과장은 "목조문화재 화재 시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점검 훈련과 같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임시거주시설 조성 사업 공모 선정

무주군이 전북도가 주관한 '2023년 임시거주시설 조성 사업(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청년 귀농·귀촌인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지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임주를 목표로 거주시설 20호, 세대별 텃밭 660㎡ 등 맞춤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귀농·귀촌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거주 공간 확보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게

됐다.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생활 및 영농기술지도와 연계하여 귀농귀촌인이 관내 유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황인홍 군수는 "사업부지 주변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0세대,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1동, 농촌형 공공임대주택14세대(예정), 고품 은퇴자 마을 40세대(예정)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귀농·귀촌인이 모이고 어울리고 상생하는 귀농귀촌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3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진안군은 농촌 지역 거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 등으로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건물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진안군에서는 지난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통해 393동에 대해 용지지원을 실시해왔다.

이번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지역 농축업을 통해 신축(최대 2억), 증축·대수선(최대 1억) 종류에 따라 저

금리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액을 최대 280만원 까지 면제해주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2023년부터는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도 새롭게 시행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진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농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진안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도 농민 공익수당'을 신청 받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진안군은 5,145농가에 60만원 씩 총 30억 8,700만원 규모의 농민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 사업비는 전년보다 증액된 32억6,1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는 4월 28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마을 이장에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민수당은 대상자 자격검증을 거쳐 9월 중 농가 당 6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농업부산품 또는 폐농자재 불법 소각하여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과수 화상병 예방 약제 지원

장수군은 최근 과수농가에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의 사전예방을 위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잎, 꽃, 가지, 줄기,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마르며,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한다. 특히, 전과 속도가 매우 빨라 한번 감염된 과원은 발병한 나무를 제거하거나 폐원해야 한다.

이에 장수군은 총 3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월 말부터 총 3회에 걸쳐서 생육시기별 적기방제를 위한 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